

# 민중미술 60년 “풍경에도 역사 있지요”

완도 출신 손장섭 화백, 광주시립미술관서 초대전  
거대한 나무·민중의 소리·자연풍경 등 3부로 구성



이성부(1942~2012) 시인은 시 '손장섭'에서 오랜 친구 손장섭(80) 화백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그대/흔저서 늙는 가슴으로/가슴 버린 사람들의 흔적 짙어 가나니/ 부딪치며 싸우며 살 부벼 일으키나니/(중략)//오, 더 간절하게 눈 감거나/ 온 세상의 타는 불꽃들/ 모두 그대의 가슴이 될 때까지”라고.

전시장에서 작가의 작품을 보고, 시인의 시를 읽고, 아주 자그마한 체구의 노화백을 만났다. 그는 올 봄과 여름 9m 대작 ‘한국 근현대사’를 그렸다. 만주별판 독립운동 시절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담아낸 그림이다. 아직도 그는 ‘온 세상의 불꽃을 꺼안으며’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는 듯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정승보)에서 열리고 있는 ‘손장섭, 역사가 된 풍경’ (2020년 2월2일까지)전은 민중미술의 대부로 60년 화업을 이어온 손화백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전시다. 미술관은 해마다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원로·작가 작품을 선정, 초대전을 열고 있다. 완도 출신으로 30여년 전부터 파주에서 작업하는 손화백은 그림 전에 간혹 작품을 선 보인 적은 있지만 오롯이 자신의 작품만으로 광주에서 개인전을 여는 건 50여년 만이다.

“역사라는 건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아요. 망원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역사의 창’이라는 타이틀 아래 많은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철책을 바라볼 때 왜 저 철책이 저기에 설치돼 있는 지 그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바다만 보는 경우가 많지요. 풍경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 역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라벌고와 흥덕대에서 수학한 손화백은 현실과 발언 동인을 거쳐 민족미술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제2회 민족미술상, 제10회 이중섭미술상과 제15회 금호미술상을 수상했다. 손화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한국·현대 예술사 기술채록 사업’에 박서보 화백에 이어 두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3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파트는 ‘거대한 나무-신목(神木)’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압도적인 느낌을 받는다. 녹색 벽면에 자리한 거대한 나무들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광주향교 향나무, 용문사



‘광주향교 은행나무’

은행나무, 완도 장좌리 나무, 태백산 주목 등 그가 화폭에 풀어낸 전국 각지의 나무들은 햇빛은 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뚝 서 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손장섭의 색’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색감이다. 흰색 물감을 섞어 나이프로 찍어바르며 만들어진 탁한 색감은 묘한 느낌을 주며 작품에 깊이를 더하고 신비감을 부여한다.

“어느 날 새벽에 나무를 바라보는데 줄기가 하얗게 보여 그 신비로운 기운을 잊을 수 없어 나무를 그리게 됐어요. 특히 음나무의 특성을 알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나무는 어릴 때는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지만 크면 그 가시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다 컸는데 가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

죠. 인생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세월을 겪으며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무엇보다 나무는 ‘줄기’가 중요해요. 이파리가 있으면 그 진가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을 그립니다.”

손화백은 우리시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냉철한 역사의식도 잊지 않았다. 그 작품들은 두번째 색선 ‘민중의 소리-역사의 창’에서 만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4·19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 나가 그 모습을 직접 그린 ‘사월의 함성’ (1960)은 4·19를 다룬 가장 오래된 그림이다. 또 ‘현실과 발언’ 창립전에 출품했던 ‘기치존인상’, 80년 오월을 그린 ‘오월 함성’ 등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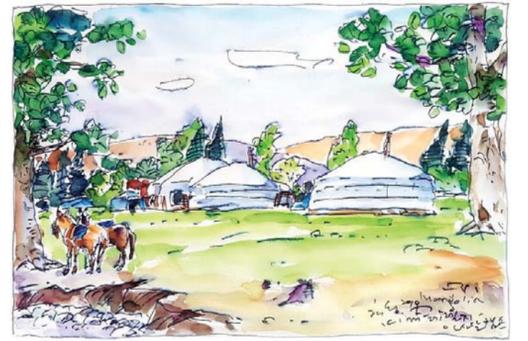
“당시는 추상과 목우회풍의 사실주의가 유행이었는데 현실을 그림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으로 강렬한 발언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작장이 있으니 제가 모임의 회장을 맡았구요.”

‘자연풍경’ 색선은 그가 담아낸 대한민국의 풍광이다. ‘땅끝에서 청산도까지’, ‘해남 땅끝’ 등 남도의 풍경을 비롯해 금강산, 독도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작장이었던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솔로 나날을 보낸 날의 풍경을 담은 ‘자화상’, ‘고등학교 시절 그린 수채화 작품 등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 마지막에 만나는 영상물은 그리 길지 않지만 손화백의 육성으로 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있다. 학비가 없어 미술대학이나 상을 받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이야기, 귀농하는 아버지를 따라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서울역에서 불래도 망친 사연,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하고 전투수당을 받았지만 송금된 돈을 친구가 가지고 도망간 이야기, 나무에 빠져게 된 사연, 민중미술을 하며 겪은 일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같이,  
가치있는  
일을  
해보자



김해성 작 '몽골'

김해성 등 작가 10명 ‘몽골 나눔여행’ 전, 13~17일 아크갤러리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담은 전시회.” 지역 대표 중견 화가인 김해성 작가 등 지역 작가 10여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아크갤러리(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10-8)에서 ‘2nd 몽골 나눔여행’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국제봉사단체인 (사)광주국제협력단이 해당 작가들과 함께 몽골 테를리(Terelj) 날라크(Nalakh) 마을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같이-가치’ 국외 나눔 활동을 벌인 결과물을 전시하는 두 번째 아트 펀딩 전시다.

전시 참여 아티스트는 김영태·문정호·전현숙·조근호·정성숙·임의진·김영실·문희진·이승가·임근재·김홍근·고근호 작가 등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몽골 테를리지역공립원 일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

다. 광활한 초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계곡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50여점이 출품됐다.

광주국제협력단 국외나눔활동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작가들과 아마추어 작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시작됐다. 특히 아트펀딩은 올 초 진행된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 중견 화가들이 지역 유망 젊은 작가들을 위해 문화나눔행사에 함께 동참하는 한편, 다양한 작품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오픈 13일 오후 6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소소한 일상 속 다양한 이야기

서양화가 김왕주 개인전, 17일까지 양림미술관

서양화가 김왕주의 작품은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가의 말처럼 긍정의 기운이 넘쳐난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꿈꾸는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화폭엔 호기심 가득한, 유쾌한 표정의 여성이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보다 밝고 알록달록한 색들의 색감과 꽃무늬, 도트 등 다양한 문양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리듬감은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김왕주 작가 개인전이 17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표작 ‘바람 불어 좋은날’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기도 하고, 작은 북과 큰북을 신나게 두드리며 거침없이 거리를 활보한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화려한 보석반지에 커다란 머리카락 맨 모습으로 여인가를 향해 떠나는 여행에 동행하고 싶어진다.

‘화장대’ 시리즈는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화려한 색동과 씨앗을 품은 열매와 화사한 꽃으로 표현해 내 눈길을 끈다.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비추주는 ‘거울’의 의미를 벗어나 인간의 다채로운 삶과 인품과 정신까지도 담고 있다는 의미를 넣었다. 그밖에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생의 회전목마’ 시리즈도 전시하고 있다.



‘화장대’

조선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현재 www.현대미술가협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모션툰 영상으로 만나는 ‘호랑가시나무 언덕’

일제강점기 양림동 다룬 손예빈 장편... ‘QR 코드’ 광주·서울 등 10곳에 부착



일제강점기 양림동을 소재로 영상화했던 손예빈 작가의 장편 ‘호랑가시나무 언덕’이 모션툰 영상으로 제작됐다.

이번 작품은 소설의 주요 장면을 QR코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모션툰 영상(웹툰 기반 영상)이며, 소요 시간은 모두 8분이다. 지난 6월 광주콘텐츠포럼 G크리에이터 공모전에 기획안이 당선돼 이번에 영상으로 제작됐다.

현재 모션툰은 양림동 오거리를 비롯해 양림동 5곳, 광주 YMCA 회관 앞, 나주 황포돛단배 체험장, 서울 3곳 등 총 10곳에 부착돼 있다.

모션툰 시나리오 대본은 손예빈 작가가 소설을 토대로 썼으며 영상은 스튜디오 1984에서 제작했다. 전체적으로 소설을 압축한 내용으로 주요 사건 줄거리가 모티브가 됐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호랑가시나무 언덕’ 모션툰이라고 치면 볼 수 있다.

지난해 출간돼 나주문학상을 수상한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광주전남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 광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했다. 원래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광주를 찾아온 선교사들의 사택이 들어선 곳으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

또한 소설에는 조선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오방 최홍중, 강순명, 이현빌, 김준호를 비롯 여주인공 정연주의 이야기가 양림동과 광주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손 작가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굳세고 의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이들과 독립투사들의 삶을 소설을 통해 기리고 싶은 마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쓴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올곧은 뜻을 작품을 통해 온전히 표현해 내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손예빈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약간지를 품에 안고’로 아동문예문학상을 수상했다. 2016년 ‘나주 양림 설화 이야기’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전에 당선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해설과 함께하는 우리춤 이야기 ‘전통 흥이로구나’

국악중심 연,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전통춤 연구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악뮤지컬 등을 제작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예술법인 (사)국악중심연(대표 김나영·사진)의 해설과 함께하는 우리춤 이야기 관객들을 찾아온다.

‘전통 흥이로구나’의 세번째 시리즈인 이번 공연은 16일 오후 5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공연 레퍼토리는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진도북놀이, 벽파입춤 등이다.

진도북놀이 예능보유자인 박강열 선생과 판소리 명창 손혜영, 소민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김나영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살풀이춤과 승무 그리고 태평무에 해설을 곁들였다”며 “관객들이 우리춤에 공감하고

(사)국악중심연은 2000년 창단돼 전통예술의 공연과 인접 장르와의 결합, 다양한 장르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전통문화예술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